

第113回

7月 10日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13회 발명교실이 지 ...○
- ... 난 7월 10일 발명장 ...○
- ... 러관 연구실에서 개 ...○
- ... 최됐다. 매월 둘째 토 ...○
- ... 요일 오후 1시 30분 ...○
- ... 에 개최되는 발명교 ...○
- ... 실은 이달에도 1백여 ...○
- ... 명이 참석하여 성황 ...○
- ... 을 이루었다. 이날 발 ...○
- ... 명교실에서는 황중 ...○
- ... 환 변리사의 「산업 ...○

분리수거형 쓰레기통 발명가

홍우무역 유인철 사장

홍익인간(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친구(友)들이 모여 일찌기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자 뜻을 같이 하여 1990년 3월 분리수거형 쓰레기통을 주 생산 품목으로 창업하였다.

인간은 자연이 주는 공기와 물 등의 울타리 속에서 생활을 영위한다. 자연은 그래서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그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의 표시도 없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어느 공익광고의 문구

처럼 “자연은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이니 아름답게 가꾸어서 돌려주자”는 내용도 있다.

여기에 그 소중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있다. 홍우무역 대표 유인철 사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홍우무역은 홍익인간(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친구(友)들이 모여 창조덕 사고, 성실한 봉사, 인화와 협동의 사훈 아래 1990년 3월 분리수거형 쓰레기통을 주 생산 품목으로 창업하였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유사장이 분리수거형 쓰레기통을 만들고자 마음먹은 것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어느날 아침식사를 하다가 어머

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던데 그걸 이용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시는 말씀에 유사장은 자신이 그 방법을 찾아내고자 생각했다. 여기서 착안한 것이 바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법이었다.

종래의 쓰레기통은 투입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가 한곳에서 뒤섞임으로 한번 버려진 쓰레기는 모두 매립되어 부족한 매립지난을 가중시키고 자원도 낭비하는 이중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사장은 이런 눈에 보이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재산권제도」에 대한 …○
- … 강의에 이어 홍우무 …○
- … 역 대표 유인철 사장 …○
- … 의 성공사례 발표가 …○
- … 있었다. 본회 상근이 …○
- … 사의 「발명의 발상 …○
- … 기법과 사업」에 대 …○
- … 한 강의는 사정상 …○
- … 쉬게 되었다. 발명가 …○
- … 의 성공사례를 간추 …○
- … 려 소개한다. …○
- … <이두성記> …○



는 낭비를 줄이고자 하나의 쓰레기통에 투입구를 여러개 설치하여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나 빈 병류 또는 캔류 등이 그냥 버려질 때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다.

이렇게 분리되어 버려진 쓰레기는 매립통과 재활용 가능품으로 구분되어 매립지로 향하는 쓰레기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크게 줄어 들었고, 빈 병류 빈 캔류 그리고 종이 등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이득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유사장은 자신이 개발한 이 “분리 수거형 쓰레기통”에 대해 상표와 의장등록을 받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유사장이 만든 쓰레기통을 살펴보면 이전의 쓰레기통이 대부분 철이나 플라스틱, 나무 등으로 만들어져 얼마 지

나지 않아 부식 및 파손이 심해 제품의 내구성이나 영구성이 매우 취약했다. 이런 용기는 주위환경이나 조화도 고려되지 않아 말 그대로 쓰레기통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사장은 용기의 재료로 스테인리스 및 F.R.P(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를 이용하여 부식의 방지 및 계절에 따른 온도의 변화와 파손에도 대비하였다. 통을 놓는 곳도 자연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이동용 바퀴를 부착시켜 필요할 때 이동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쓰레기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단순한 쓰레기통이라기 보다는 이미 하나의 상품이 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방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쓰레기통을 가지고 상표 및 의장의 등록도 받았지만 유사장으로서 특별한 기술적 노하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

이 없었다. 그래도 유사장은 “이런 계기로 우리 환경의 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이 늘어난다면 다 좋은 것이지요”라며 여유도 보여 주었다. 아직은 쓰레기통 제작이 기계화가 못 되어 수작업으로 만들어 내고 있지만 곧 기계화가 가능할 것이라 단다.

자연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유사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버리는 사람, 수거해 가는 사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유사장과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자연은 나아질 것이 틀림없다.

한 발명가가 깨끗한 자연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